

옛날 성경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작년 12월부터 공예배 성경을 개역한글에서 개역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한인교회는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하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성경만 바뀐 것이 아니고 찬송도 통일찬송가에서 새찬송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습관이 생겼는데 웬만해서는 찬송가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살짝 바뀐 단어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종전에 익숙한대로 부르다가 틀리기 일쑤라서요. 지금까지 몇 번 실수하였는데 당분간은 계속 신경 좀 써야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성경을 바꾸면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표현도 다소 달라졌습니다. 특히 예배 중에 함께 눈감고 신앙고백하던 사도신경의 경우, 지금은 눈을 뜨고 읽으면서 신앙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는 않아도 좀 더 신중하게 의미를 생각하며 다같이 신앙고백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혹은 보지 않고 신앙고백해야 할 경우에는 익숙한 옛날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구요. 약간은 불편하시겠으나 둘 다 형편에 따라 유익하게 그리고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성경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며 사용하지 않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훼손되지 않는 한 소장하는 편입니다. 혹시 버리게 될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여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아직 개역한글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노회 목사님들께 여쭙었더니 몇 교회에서 필요하시다며 문의하시더군요. 편하게 가져오세요. 감사합니다.

2019. 3. 24. 임철성 목사 올림